

중앙감독회 보고
2009 년 6 월 29 일

제 27 차 나사렛 교회
중앙총회

Orlando, Florida, USA

서론

중앙감독회의 동료 감독들을 대신하여 여러분 모두를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대의원 여러분들은 물론, 방문객,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오신 모든 나사렛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외 우리와 함께 이 뜻깊은 제 27 차 나사렛 교회 중앙총회에 함께 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아침 우리 모두는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폴 커닝햄 박사가 전해주신 메시지에 의해 깊은 감동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예배 자체가 장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 모두는 중앙총회를 예배로 시작한 셈입니다. 일의 시작을 예배로 한 것입니다.

지구촌 단위의 각종 대회들과 매일 저녁 그리고 주말에 특별히 계획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료 중앙감독들에 의해 전파된 메시지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임재를 축하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내내 여러가지의 조직과 입법 절차에 관한 문제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것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깊이 확인하는 일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사 당면한 현안과 결정 사항들을 처리하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선교 백 주년을 맞는 시점의 중앙 총회를 함께 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모임 위에

성령님의 지속적인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웨슬레안 성결 교리의 전통에 서있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의 빛 아래서 조명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방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우리들 자신을 더욱 잘 준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올란도의 주민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는 이 역사적인 모임을 위해 여러분들이 보여준 환대에 관한 것입니다. 나사렛 교회의 중앙총회를 위해 베풀어 준 모든 호의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할 것은 실질적으로 지상의 사방에서 우리를 모으사 나사렛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한 것입니다. 대의원이든 방문객이든 간에 올해 처음으로 중앙총회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나사렛 이라는 국제 가족으로서의 사역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총회 광경을 관람하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가족애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앙감독회는 특별히 중앙총무이신 데이빗 윌슨씨와 동료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거대한 규모의 총회를 치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훌륭한 성과를 내 주신데 대해 총무님과 중앙 총무국 산하 전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 온 이야기 (시 16:6)

우리 교단의 중앙총회는 흥미있는 유래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립 백 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908년 10월 미국 텍사스의 파일롯 포인트에서 있었던 교단 합병으로 인하여 미국 오순절 교회 연합회와 나사렛 교회의 연합에 그리스도의 성결 교회가 제후하게 되었는데, 이 때의 합병이 '중앙총회'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임들은 각각 천 명씩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천막 아래서 행하여졌습니다.

그 역사적인 모임은 Phineas Breese 목사를 의장으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그 총회에서 Phineas Breese 와 H. F. Reynolds 두 분이 중앙 감독 직에 재선되었으며, Texas Holiness Univeristy 의 학장이던 E. P. Ellyson 이 신입 중앙감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브리지 박사께서는 그날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짚 수 있는 시계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도래하여 한때 위대한 일들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 갈 때, 그러한 원대한 일들의 출현을 기대하며 음지에서 수고하던 사람들은 좀처럼 마음을 가다듬기 어렵습니다...그러한 일들이 실현되리라고 미처 상상도 하지 못한 탓이지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내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렛 교인들은 지난 1 세기 동안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너그럽고 희생적인 나눔, 때로는 시련과 실패, 그리고 실로 힘든 과업 등을 통하여 자신들이 아는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전 세대가 남긴 실질적인 유산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신실한 수고를 감당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세대가 끝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제 27 차 중앙총회의 종료와 함께 나사렛 교단의 제 1 세기가 끝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렛 교단의 제 2 세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곳 올란도에서의 중앙총회가 이미 그러한 변화의 조짐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교단의 한 세기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지구촌 차원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내포한 미래가 이미 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 선 상에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근본이 되는 신념과 핵심 가치, 그리고 사명을 나누는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각종 통계상의 실제와 복음전파의 기회들을 적극 수용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재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 하리니” (수 1:5)라는 약속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중앙총회는 지구촌에 닥쳐 온 경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금년 초 삼 개월 여동안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국민 총생산액 (GDP)은 무려 21%나 감소되었고, 일본은 15%, 독일이 14%, 그리고 미국은 작년 4/4 분기 대비 6%의 감소를 초래하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실로 어렵고 난감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예외가 아니며, 경제가 금방 나아지리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정상이라는 말 자체가 아득히 여겨질 정도입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위기는 개교회와 연회, 교육 기관, 구제 사역부, 선교사들의 삶, 지구촌 사역부, 그리고 각 지구별 사무처의 살림살이에 여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사렛 교인들이 일자리와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각 교회와 나사렛 구제 사역부는 자체의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면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새로운 경제적 관망이 이행되고, 그와 함께 변형된 교회 재정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치는 않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교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위기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계획이나 프로그램, 구조와 조직과 같은 것은 상황에 따라 재고되거나 변형되고, 필요한 경우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제자들을 이 땅위에 배출해 내는 선교의 노고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의 경제 지표보다 우월한 분이신 이상,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나사렛 교단의 지도력의 자질은 그 수준 여하에 불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하에서 바로 이 점에 있어서의 결단을 촉구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위기의 한 복판에 있는 지금, 바로 이 중앙총회가 나사렛 교단의 삶에 있어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동시에 결정해야 하는 교차 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사 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교단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나아갈 방향은, 100 년전 Phineas Breese 와 H. F. Reynold,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제시한 그대로입니다:

- 성결과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 세상을 복음화 하라는 부르심
- 제자가 되며, 제자를 삼을 자로의 부르심
-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비와 동정으로의 부르심
- 교육의 가치를 존중하며, 선교에 있어서의 교육의 역할을 중시하는 일로의 부르심

하나의 교회 - 많은 회원들

기록에 의하면, 1908 년 새로이 통합된 나사렛 교회는 회원 수 10,034 명에 228 개 교회, 11 개의 연회, 그리고 19 명의 선교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28 개 교회의 총 모금액은 미화 \$ 140,000 이었으며, '해외 선교'란 이름으로 \$ 12,000 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교단의 출범기부터 하나님께서 신생 교단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그룹들이 하나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완전 성결의 교리와 체험,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화 하고자 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 힘을 합하여 연합하였습니다. 힘을

합치므로써 재능도 더해지며, 일의 규모 또한 더욱 확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성결 그룹들이 혼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함께 하는 식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국제적인 성결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으며, 그 꿈이 이루어져 오늘날 우리가 선교 1 세기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제 2 세기에 접어든 나사렛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1998 년에서 2008 년 사이의 십 년 동안 나사렛 교회는 백 주년을 목표로 하여 구성된 다섯 가지의 범주에서 각각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앙 총무의 보고에 의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태평양, 캐나다, 카리프안, 유라시아,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미국 등 각 지구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각각 독특한 방식의 중요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백 주년을 목표로 한 기준치의 95%가량이 달성되었습니다.

분류	백주년 목표	달성 비율 (백분율)
정회원 수	2,000,000	92%
예배	2,000,000	65%
개교회	18,000	121%
신입 나사렛 교인	1,000,000	112%
주일학교	1,000,000	86%

백 주년 기념 목표치가 설정되었던 1998 년도의 회원 수는 130 만이었는데, 2008 년도에 들어서면서 무려 50 만명이 증가한 180 만을 기록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관점을 위해 1964 년에 미국 오레곤 주의 포틀랜드에서 열린 중앙총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교단의 역사가 지금의 절반 밖에 되지않던 시절 전체 회원 수는

400,000 명 가량으로서, 그중 82% 가량이 미국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약 100 만명 이상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출신의 회원들입니다.

미국은 645,000 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최대 단일 지구이며, 지난 40 년 동안 미국 내의 나사렛 교인들의 수는 해마다 25,000 에서 35,000 명씩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괄목할만한 수치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 년 동안은 인구 증가율 자체에 따라 간신히 현상유지를 하는 정도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선교 현장마다 신 회원 증가의 한계나, 각 교단들의 통폐합, 그리고 개척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성향 때문에 답보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 한가지는 미국이 아닌 세계 각 곳에서는 놀랄만한 비율의 대각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 곳의 여러 나라들에서의 홍왕이 미국 교회에 크나큰 도전과 용기를 제공합니다. 온갖 기형적인 문화의 양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선교 지역인 미국 내에서 복음전파와 제자훈련의 기회를 강화할 수 있는 여지는 무수히 많습니다.

백 주년은 앞둔 시점에 구령 사업에 있어서의 숫자 상의 증가 외에도, 세계 복음화 기금과 특별 선교비의 영역에도 역시 진전이 있었습니다. 1998 년의 \$ 5,310 만에 달하였던 것이 2008 년도에 들어서면서 \$ 8,420 만을 기록하여, 지난 십 년 동안 무려 \$ 3,110 만이 증가하였습니다.

나사렛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덜 된 지역을 일컫는 '10/40 창' (window)에 속한 66 개국 가운데 33 개 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사렛 교회의 선교사들은 세계 41 개국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주는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나사렛 교회는 결코 죽은 교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너그럽게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단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백 주년의 목표와 관련한 세부적인 강조점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숫자 하나 하나가 모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나사렛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된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더욱 더 감사하는 교단이 되어야 합니다.
2. 이들이 모두 제자훈련과 동화 그리고 친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양육을 위한 개인적 조치의 책임을 누가 맡을 것입니까? 사람의 심령을 깨끗케 하시며 변화시키는 성령의 성결케 하는 능력에 대하여 가르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소득을 갖고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3. 백 주년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하신 방법과 취지를 재연하는 데에 있습니다. 구령 사업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것이 각각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세계 각 지의 개교회에 속한 성령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달성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역에 헌신된 목회자와 전도자, 평신도 일꾼, 선교사, 기관 목회자들이 바로 그들이며, 교사와 선생, 연회 감독과 각 지역의 조정자들이 또한 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각각 '교회'입니다. 복음전도와 제자훈련의 과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 온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백 주년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고 가실 그 분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과 선교의 사명을 향한 우리의 핵심 가치에 대해 충실한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그에게 온전히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사렛 교회의 사명

교단 창립 60 주년을 맞는 시점에 여러가지의 크나큰 변화의 여지들과 관련하여 중앙감독회는 나사렛 교회의 사명을 재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서, 그후로 수년 간의 연구와 검토 작업 끝에 2006 년 12 월 드디어 다음과 같은 나사렛 교회의 사명 선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삼을 것

교회의 최우선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세상을 자신과 더불어 화목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각각 복음전파와 제자훈련, 그리고 구호 사역에 종사하는 이유 또한 바로 이 사명을 완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도 바로 이 사실을 의미하며, 거룩함의 본질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 선언은 나사렛 교회의 존립 목적이라는 보다 넓은 취지 하에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변화의 은총을 알게 하며,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의 대속과 화목의 진리를 경험하는 방식이다.
- 온전 성결의 교리와 체험을 선포함으로써 모든 신자에게 알도록 한다. 그들 각자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그들을 격려하며 돕는다. 이 또한 믿음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다. 바로 이 메시지가 나사렛 교회의 특징과 사명, 그리고 중점 사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이 메시지를 빼고 나면 우리의 사명 또한 사라지고 만다,
- 신자들을 교회 회중으로서의 교제와 회원직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한다.

-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사역자의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며,
- 선교의 사명을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파송한다.

우리는 실로 많은 헌신된 제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힘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 교단의 사명은 전 세계에 산재한 많은 개 교회들에 속한 교인들을 명실공히 제자화 하는 것입니다.

장정의 두번째 서언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개 교회는 우리의 믿음과 사명의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정의 '개교회 통치'의 서언 참조)

영어식 표현으로도 '교회'라는 말이 우리 교단의 이름의 시작입니다 - 'Church of the Nazarene'

단일 관할 중앙감독 체제

중앙감독회는 2008년 3월 1일부로 지구촌 사역본부의 활동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감독회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중앙감독 각자가 지구촌 사역부의 기능을 각각 분할 감독하였는데, 새로운 통치 방법을 계발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역본부와 나사렛 출판사의 기능을 총괄하는 1인 관할 감독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감독들은 수시로 자문과 격려의 기능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감독회장은 정기적으로 감독회에 지구촌 사역본부와 출판사의 기능을 보고하게 됩니다.

첫 해인 지난 해에는 개인적으로 저의 책임 년도였으며, 관할 중앙감독제를 2년으로 정한 탓에 2010년 1월이면 현재 감독회의 총무인 J. K. Warrick 박사께서 지구촌 사역본부와 출판사의 관할 감독이 될 것입니다.

지구촌 사역본부의 이전

2008년 9월 15일부로 나사렛 교회는 전 세계에 산재한 행정 업무의 산실을 미국 캔사스주의 Lenexa 로 옮겼습니다. 본부에 새로이 입소하는 날, 전 직원들은 중앙감독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감독들은 예배를 함께 인도하면서 새로운 지구촌 사역본부의 탄생과 입주가 있기까지 우리 모두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2009년 2월 나사렛 교회의 중앙 위원 모임을 위해 참석한 세계 각지에서 온 중앙위원들은 지구촌 사역본부의 봉헌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특별한 방식의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지구촌 사역본부 건물의 태동과 함께 우리는 다양한 방식의 행정 업무의 통합 및 의사소통 체계의 효율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단 각 부서의 직원들이 한 장소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양한 차원의 상호작용과 창의적 협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앙감독회는 교단 전체를 대신하여 그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교단 본부에 속한 다섯 개 건물들 가운데 하나는 이미 팔리어서 그 대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아직 매매 시장에 상정되어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판매될 것으로 봅니다.

백주년 기념

오늘 우리는 나사렛 교회의 백 주년을 기념하는 정점에 도달하였습니다.

교단 창립 초기부터 인도와 카페 베르데, 과테말라와 쿠바,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일본에 이르기까지 선교의 열정을 불태웠던 믿음의 영웅들을 본받아, 올 해를 기점으로 Guinea Conakry, Moldova, Niger, 그리고 Norway 에 선교의 기치를 내 걸기 시작한 나사렛 교회는 선교의 유산과 열정을 간직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백 주년은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특성을 재점검하도록 해 줍니다. 백 주년 기념 주일에는 세계적으로 24 개의 시간대를 따라 151 개 국의 개교회들에서 뱀전 2:9-10 을 본문으로 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백 주년은 또한 우리 교단 자체의 언어와 국가, 문화, 그리고 그에 따른 예배의 다양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자의 마음가짐과 생활에 있어서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동일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지구촌 복음화를 위한 목적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1,000 여개의 개교회들이 주님의 성찬에서 한 떡과 잔을 나누는 식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백 주년은 우리의 신조를 바르게 전달하는 방법과 새로운 신자에게 세례를 배풀고 신입 교우들을 받아들이는 문제, 교회를 조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에 있어서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축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감독회는 에디오피아에서 미국 캔사스, 그리고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의 나사렛 교인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축하하는 경험을 여러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뉴질랜드에서 그 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나사렛 교단의 예배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모아와 한국, 그리고 인도의 여러 그룹들이 연합하여 다양한 문화와 음악적 형태를 갖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8 개국의 젊은이들이 각각 자국의 국기를 들고 나와 자랑스럽게 강당 앞을 행진하는 예식을 가졌으며, 모두 13 개 국의 언어로 성경 본문이 읽혀졌습니다.

세계 각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국제적으로 반영하는 일이 그곳 뉴질랜드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다양성 속에 하나를 이루며, 하나에서 여럿을 낳는 교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 주년 기념 행사의 총 책임을 맡았던 Gay Leonard 씨에게 감사의 빛을 쬐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한 각 나라의 조정자들과 나사렛 출판사, 그리고 백 주년 행사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 미 크리스천 신용조합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교회의 밝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100 년 동안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100 년의 과업을 시작할 것이며, 열방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위한 새로운 열정을 재다짐하는 바입니다.

지구촌 사역 본부에 대한 평가

2008 년 가을 지구촌 전체의 경제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중앙 감독회는 중앙 총무인 David Wilson, 그리고 재무인 Marilyn McCool 씨와 함께 지구촌 사역 본부의 사역 전반에 대한 정황 별 평가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는 일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분명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지구촌 경제의 감소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연될 회복
- 교단의 획일화된 현금 공식에 있어서의 변화와 수익에 있어서 예상되는 감소
- 지구촌 사역본부와 각 지구별 사무처의 선교 우선 순위에 따른 재조직, 더욱 효율적인 행정제도, 그리고 직원 수의 감소

내부적으로 지구촌 사역본부가 직면한 사안들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 수익 감소
- 예비비 감소

- 핵심 사역들에 한한 재정 지원
- \$ 2,500 만에 달하는 지구촌 사역 본부의 채무 의무를 세계복음화 기금에 의존하지 않고 담당해야 하는 책임

가장 최근의 정보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2009 년 중반기 동안 약 10% 가량의 운영 예산의 감소를 위한 목표가 이행되었습니다. 감소 목표액수에 대한 실질적인 경비에 대한 조사가 분기별로 실시될 것입니다.

- 운영 예산에 대한 감소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0 회계년도 - 지구촌 사역본부 예산에 대한 추가 5% 감소

세계 복음화 기금 수입 액이 \$ 4,440 만 일 것으로 추정함

2. 2011 회계년도 - 지구촌 사역본부 예산에 대한 추가 6.7% 감소

세계 복음화 기금 수입 액이 \$ 4,130 만 일 것으로 추정

추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비와 운영 예비비를 설정하고, 구 본부 건물이 위치한 Paseo 지역의 시설들에 대한 공정한 시장 조사를 지속하고, 또한 지구촌 사역본부의 채무 연금에 대한 기금을 조성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중앙 감독회는 금년 2 월에 다음과 같은 경비 절감을 선언하였습니다:

- 중앙의 각 사무처들은 2009 년 7 월 1 일부터 중앙감독회와 함께 급여를 2007 년 회계 년도의 수준으로 인하 조정한다.
- 지구촌 사역본부의 직원 신규 채용을 금한다.
- 지구촌 사역본부의 여행 경비를 줄인다.

- 지구촌 사역본부의 전 직원들의 임금인상 비율을 인하하며, 향후 3년간 임금을 동결한다.

예산 심의 절차의 주요 부분은 지구촌 사역본부와 각 지구 사무처의 직원 채용 문제입니다. 직원 숫자가 최고로 많던 1988년의 경우 구 교단본부에는 32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였습니다. 2009년 5월 현재 지구촌 사역본부의 직원 수는 210명이며, 이 가운데 178명은 세계 복음화 기금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연금 본부나 구제 사역부, 그리고 미국 내 교회 대부금 부서 등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계 년도의 끝인 9월 30일까지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 기금에서 지원하는 직원 수를 153명으로 줄이는 것이며, 이미 24명 정도를 감원시키므로써 금년 5월 현재 13%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가 세계 선교를 최우선시하는 우리의 사명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 때문에 현지의 선교사가 본국으로 소환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앙 감독회와 지구촌 사역부의 전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선교사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촌의 선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원금이 모자라서 선교사가 현지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최종 결심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교단 역사상 딱 한번 1920년대의 대공황 시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다시는 그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 27차 중앙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및 동료 교우 여러분 모두가 전 세계에 산재한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구촌 선교를 위해 매진할 것이며, 선교사 여러분들의 사역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돕겠으며, 기도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중앙 위원회의 조직

중앙 위원회는 2008년 12월 중앙 위원회의 조직 상에 큰 변화를 결의하는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 제안들은 2009년 2월 중앙 위원회에 의해 정식으로 채택되었는데, 이번 중앙 총회가 끝나고 2010년 2월에 새로운 중앙 위원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효력을 갖게됩니다.

새로운 조직은 중앙 위원화로 하여금 지구촌 차원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특별히 다음과 같은 교단의 사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구촌 선교 위원회

이 위원회는 나사렛 교회의 지구촌 선교전략에 필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 지구촌 사역 및 봉사 위원회

이 위원회는 주일학교 및 국제 제자훈련 사역, 나사렛 국제 청년회, 그리고 나사렛 국제 선교회 및 국제 사역부와 지구촌 나사렛 출판 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 지구촌 교육과 교역 증진 위원회

이 위원회는 국제 교육위원회와 함께 활동하면서 지구촌의 각 교육기관들과 교역 준비 과정, 교역 발전 과제, 그리고 그 외 교육과 사역 전반에 걸친 자문 역할을 할 것이다.

- 지구촌 행정 및 재정위원회

중앙 총무와 중앙 재무, 그리고 관련 부서들이 이 위원회와 함께 일하면서 정책과 집행 과정 등에 대하여 상의한다.

중앙 감독회와 중앙 위원회는 세계 선교국과 미국과 캐나다 선교/전도국의 통합을 제안한 2005년 중앙 총회의 결의안 (GA-310)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구촌 선교 위원회라는 단일 기구와 관련 부서의 출현을 결의하였으며, 이와 함께 중앙 위원회의 전반적인 재조직을 통하여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구촌 사역본부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직의 일환으로 미국과 캐나다 선교/전도국 사무실을 본부 내에 두고 목회자와 개교회, 연회,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내의 연회감독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의 책임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무실은 Robert Broadbooks 씨의 관할 하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벌써 실질적으로 일이 시작되어, 중앙 감독 위원회는 중앙 위원회, 지구촌 사역본부, 각 지구별 사무처, 연회, 그리고 교회들과의 협력 하여 이러한 결정을 보다 구체화 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금 마련 방법

중앙 감독 위원회는 또한 2008 년 12 월부로 세계 복음화 기금의 배당율을 현재 전 세계에 산재한 나사렛 교단의 개교회의 총 수입의 5.5%로 할것을 투표로 결의하였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보다 원대한 지구촌 차원의 주인 의식을 갖고 세계 복음화 기금 마련과 지구촌 선교에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새로운 지구촌 차원의 기금 마련 방법이 2009 년 총회에서 가결되면, 2010 년도 연회 총회에서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 방법은 현 회계년도의 수입을 근거로 합니다.

중앙 감독회와 미국 국가 위원회와 중앙위원회는 또한 다음과 같은 미국 내의 방법도 가결하였습니다:

채택된 미국 내의 기금 마련 방법

세계 복음화 기금	5.5%
은급비	2.0%
교육 기금	2.5%

미국 내의 방법 역시 2010 년 연회 총회에서부터 효력을 갖게 되며, 이 또한 현 회계 년도의 수입을 근거로 합니다.

미국 내의 연회 예산은 나사렛 교회의 선교 기금의 핵심적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위의 범주와 비율과는 별도의 것입니다. 각 연회마다 나름대로 선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체의 예산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안의 기초는 장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중앙 감독회는 연회 예산안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내 가지의 기금, 즉 세계 복음화 기금, 은급비, 교육비, 그리고 연회 예산이 미국 내의 개교회의 선교와 관련된 각종 헌금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감독회의 제안은 Point Loma 나사렛 대학의 학장인 Bob Brower 씨가 의장인 예산 배정 위원회의 활동과 그 위원회의 자문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 위원회는 2005 년 중앙총회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지구촌 사역본부가 세계 복음화기금으로부터 지나치게 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1980 년 이후부터의 기금 조성 방법은 개교회의 지원금을 하향 조절하였을 뿐, 신장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1980 년도의 방법을 2007-2008 총회 연도에 적용한다면 세계 복음화 기금액은 실제로 배당된 \$ 4800 만 대신에 \$ 6800 만에 도달할 것입니다.

지난 20 년 동안 개교회의 수입 비율에 따라 세계 복음화 기금에 지불된 액수에는 심각한 감소가 있어 왔습니다. 새로운 방법은 재차 보다 적은 비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위한 전반적인 보완 계획이 구상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구촌의 각 교회로 전달될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과의 면담 결과 우리는 '나사렛 교인들의 헌금 방식 및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난 4 년과 백 주년에 관한 요약

그외 다른 주요 관심사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신임 아프리카 지구 담당관 – Eugenio Duarte
- 신임 남 아메리카 지구 담당관 – Christian Sarminento
- 신임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지구 담당관 – Carlo Saenz
- 신임 중앙 총무 – David Wilson
- 신임 주일학교 및 제자훈련 사역부 총무 – Woodie Stevens
- 신임 국제 교육 위원회 위원장 – Lebron Fairbanks
- 신임 미국/캐나다 총무 – Robert Broadbooks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백 주년의 노고를 통하여 약 오십만명의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친구이자 동료인 Orville Jenkins, Raymond Hurn, John A. Knight

지난 4년 동안 위 세 분의 전직 중앙감독들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나사렛 교단의 유익을 위해 위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모두 주님께로부터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호를 들으셨으리라 믿으며,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역동적인 입재 (요 5:17)

나사렛 교단히 변화의 기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과거에 대한 추억과 미래에 관한 예측에 휩쓸린 나머지 현재의 가치를 등한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삶의 장소이며, 사역의 근거지요, 미래를 정하는 곳입니다.

현재의 의미를 극대화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몇가지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

신약 성서에 언급된 바와 같은 하나님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변 안전을 고려하여 지역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비기독교 권의 아홉개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에서 것처럼 풍성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한 세기 동안의 기도와 금식, 그리고 희생적 수고와 노력을 감당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지정학적으로 집중되는가 하면, 각 교회들은 전 세계적으로 신앙고백을 통한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역사가인 Philip Jenkins 는 기독교의 이동 방식은 늘 중흥기를 경험하던 곳이 쇠퇴기를 겪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어느 한 곳에서 약화 되는가 싶으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의 기회와 문이 열리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2008 년 9 월말 현재 미국 나사렛 교회는 전체 나사렛 교회 회원 수의 35%를 차지하며, 아프리카 나사렛 교인들은 22%,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안 나사렛 교인 수는 28%를 기록하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교인 수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던 시기는 1997 년이었으며, 1998 년서부터 그 숫자가 역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과 십 년 사이에 국제 연회들의 지구촌의 회원 수가 전체의 50%에서 64%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과 아프리카의 기독교의 성장 지평의 한 단면에 불과하며, 라틴 아메리카의 복음주의 개신교 공동체 역시 지난 50 여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등장은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의 그것과 유사하며, 이는 마치 미국 교회가 1965 년 경에 경험하였던 성장의 측면과도 유사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이러한 운동은 21 세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때 미국 대륙에 있었던 운동이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운동은 많은 점에 있어서 최소한 영국과 미국 교회들의 선교의 열정에 의해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바울이 말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전 3:6)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교회들의 출현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현실 가운데서도 신속한 확장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교회들과 각종 ‘유기체적 교회들’ (organic churches), 그리고 세계 각지의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 위의 죄인들의 마음을 사랑과 자비 가운데 일깨움에 따라 새로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방식의 전도가 이러한 식의 발전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새로 개종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이며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신학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모든 운동은 원천적인 것들로서, 어떤 것은 예측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신조

나사렛 교회의 신학, 그리고 사명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선명성에 대한 요구를 지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조 가운데 특별히 제 10 항의 ‘온전 성결에 관한 교리’에 대한 수정만큼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1945년에 있었던 나사렛 대학원의 창립식에서 당시 중앙 감독이었던 고 J. B. Chapman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성결 교리는 성경의 진리라는 바퀴의 축과 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제거하게 되면 바퀴 자체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교리는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그분 앞에서의 바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 교리는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고속도로와 같은 것입니다. 샛길로 가는 수도 있지만, 그 도로가 제대로 펼쳐져 있기만 하면 고속 도로로 가는 것이 쉽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이 됩니다.

나사렛 교회는 온전 성결 교리와 그 체험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좁은 소견으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을 향한 보편적인 목마름에 충분히 공감하며, 우리만의 편견이나 주장이 아닌 지구촌 차원의 교단의 입장을 지향하는 식으로 할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교리를 사수하는 곳이 아니며, 다만 성경의 진리를 선포할 뿐입니다. 교리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리가 의미하는 바를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방법을 개발해 갈 뿐입니다.

또 다른 중앙감독이신 고 Samuel Young 박사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교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알리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사람의 영혼 속에 신적 생명을 불어 넣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무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분명한 교리가 필요합니다.

나사렛 교단의 제 2 세기는 모든 점에 있어서 제 1 세기를 능가할 것이며, 특별히 전도와 회원 수의 성장에 있어서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성령의 내주하심에 의해 거룩함이 생활 방식처럼 가능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가지 면에서 인정하고 따르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한 나라 전체가 온전 성결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온전 성결 교리와 그 체험의 열정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급선무입니다.

나사렛 교회의 백주년 기념 중앙총회를 맞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분명한 강조점과 특성을 가장 강한 어조로 재천명 하는 것이 중앙감독회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성령의 위대한 능력에 따른 각성과 부흥으로 형성된 교단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현상유지가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점을 직시할 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포함한 온갖 기독교 권의 불신과 회의로 점철된 시대 속에서 죄의 파괴성을 극복하는 유일한 해독제는 마음의 결합 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제 27 차 중앙총회에서 나사렛 교회의 신조 제 10 항에 대한 전적인 위임을 재천명하고자 합니다.

중앙감독회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이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캔사스 시티의 나사렛 대학원의 교수진을 포함하여 미국과 전 세계에 산재한 다른 나사렛 대학 및 신학교 교직원들과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2006 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지구촌 신학 협의회에서 온전 성결 교리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연구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는 장정의 신조 10 항을 재검토하되, 이 핵심 교리에 대하여 힘과 선명성을 부여해 줄 일련의 언어 상의 배열을 시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규정을 전체적으로 바꾸고자 함이 아니라, 이 핵심 교리의 의미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제하고 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한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장정의 16 개의 나사렛 교회의 신조는 우리의 신학적 정체성의 정수입니다. 그것은 결코 적당한 타협의 산물이 아닙니다. 중앙감독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그것들을 거부하고나 변형 또는 축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이해의 산물이며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념의 초점이며 사명의 배후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신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를 실시하는 전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중앙총회에서 채택된

변화들은 전 세계의 나사렛 교회의 제 2, 그리고 제 3 단계 연회들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인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 교리의 선언을 바꾸는 것은 쉽지도 않으며, 쉽게 해서도 안됩니다. 어떠한 변화라 할지라도 전 세계 교회의 지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조의 내용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신중하고, 성경적으로 일치하며, 그리고 신학적으로 분명한 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선교를 위한 기금 마련

비록 우리 모두가 뜻밖의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사렛 교인들을 가리켜 '너그럽고 사랑많은 사람들' (a generous and loving people)이라고 불리우도록 하신 이가 바로 자비롭고 사랑많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사렛 교회에 있어서 돈은 선교를 위한 부산물과 같은 것으로서, 지난 1 세기 동안 나사렛 교인들은 세계 복음화 기금의 명목으로 무려 \$ 10 억 이상을 드렸습니다. 특별 선교 명목으로 드러진 것을 총액에 합친다 치면 그 액수는 \$ 15 억을 능가합니다.

이러한 희생적 헌금이 모두 때로는 음식이나 의복과 같이 일상의 삶을 위해 자신이 꼭 써야 할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포기한 개인들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고자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온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의 지구촌 선교를 위한 기금 마련의 역사는 한 세기를 넘는 것입니다. 선교 후원 기금의 기초는 나사렛 교인들이 자신이 속한 개교회에 내는 십일조와 헌금에 있습니다. 십일조 외에도 나사렛 교인들은 부활절과 추수감사 헌금을 선교비로 드리며, 믿음의 서약 (Faith Promise) 에 따라서 해외 선교 기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복음화 기금은 특별 선교를 위해 드러진 돈이 사역과 의도된 계획을 집행하는 데에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에 집중하게끔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교 지원을 위한 생명선인 세계 복음화 기금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교회의 너그러움에 대한 불안정한 밑그림을 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기금이 지닌 특별하고 본질적인 기능도 중요하지만 선교를 위해 드러지는 그외 모든 헌금의 중요성을 직시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복음화 기금이 지구촌 선교를 감당하는 생명선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선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생활비와 각종 혜택의 원천과 같은 것으로서, 선교의 기능을 차질없이 감당하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이들과 청,장년들을 위한 우리의 중요한 사역들을 위한 기금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나사렛 국제 청년회나 주일학교 및 국제 제자훈련 사역, 혹은 나사렛 국제 선교회와 같은 사역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세계 복음화 기금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결체 교회

처음부터 우리 교단은 상호 연결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독립 교회들의 연합체가 아니며, 신조나 취지가 비슷하지만 참되고 유기적인 관계성은 배제된 교회들간의 모임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나사렛 교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호 연결된 단일 교단입니다.

상호 연결된 교단이라는 말의 뜻은 개교회라는 독립체가 열방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회들을 통하여 조직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선교의 목적과 함께 공유하는 신념의 가치를 위해 서로에 대한 책임감으로 뭉쳐 있습니다.

1 세기 동안의 긴 시간을 지나온 지금 서로에 대한 연결체로서의 의식이 다소 감소되거나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되기도 하는 위험성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중차대한 과업을 위해 필요한 상관성이 개별성으로 변질되고 마는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연결성이라는 것이하나님 편에서의 원대한 일의 특성을 배제한 체 예산이나 장정의 규정과 같은 것으로만 이해될 때, 더 큰 의미에서의 선교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치고 자원을 합치는 식의 의미가 훼손되고 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26 회의 중앙 총회와 수 천 번의 결의안들을 거치면서, 선교는 '통제 하'에 있어야만 한다는 공통된 깨달음을 기초로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결정 사항들을 거치면서 얻어진 결과는 지구촌 선교를 위한 감정에 치우치는 식의 정렬과 주인의식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와 연회 감독, 그리고 중앙감독직을 거치면서 나는 목전의 관심사를 넘어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 총회는 사명과 통제 사이의 균형을 계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부족하고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관계성이 없으며, 관계성이 없이는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연결체 교회로서 우리는 :

- 신념을 나누며
- 사명을 나누고
- 가치와 함께
- 책임감을 나누는 교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교회의 참 뜻입니다!

우리는 단지 또 하나의 조직체가 아닙니다. 나사렛 교회는, 창립 당시의 비전 그대로, '국제적인 성결 공동체' (international holiness communion) 입니다.

선교에 대한 더욱 직접적인 참여를 바라는 모든 교회들마다 나사렛 교회가 경험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선교의 연결과 각 영역, 그리고 경험의 깊이로부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 각 부분들이 어떻게 전체에 연결되어 있으며, 또 그 반대 형태는 어떠한지를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이며, 현재와 같은 관계성이 제공하는 힘을 경험하고, 그럼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더욱 강하고 건전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한데 묶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며, 성령이야말로 우리의 결합 자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선교 - 그보다 덜한 조직

21 세기 형 교회를 향한 긴박한 요구는 더 많은 사명과 그 보다 덜한 조직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적한 것처럼, 나사렛 교회는 자체적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조직을 세워둔 감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선교와 그보다 덜한 조직이라고 말할 때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말이 결코 조직이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창설자들은 환상가들로서, 교단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체제를 고안하였으며, 특별히 영적이며 행정적인 지도력에 관하여 더욱 그리하였습니다.

선교의 이상을 구현해 가면서 동시에 지구촌 사역본부와 각 지구별 사무처등을 통하여 일정한 비율의 조직을 가동해가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는 점차 지구촌 사역본부의 인원을 감소하는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선교와 성장, 그리고 기술적인 면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지구촌 사역 본부의 사역과 봉사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어떤 활동과 봉사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다른 것들은 교회 내에서 감소되거나 재설정되어야 하며 심지어는 제거되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요소들에는 신중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구촌 사역 본부나 지구별 사무처에 적용되는 일이 연회와 각 교육 기관, 그리고 개교회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재정에 관하여 보다 나은 청지기직을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조망하며, 교단이 채택하고자 하는 조직이 이전과 다른 다음 세대의 형편에 맞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교회를 통한 사역에 더욱 집중하며, 신속한 확장을 경험하는 지구촌 교회로서의 발달을 지향하는 체제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직체로서의 우리 교단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선교적
- 연결체
- 관계적
- 융통적
- 감당할만함
- 책임적

지구촌의 경기침체는 선교의 우선순위를 재확인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의 조직 자체를 재점검하는 일이 결코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앙 감독교회는 이번 기회를 지구촌 사역 본부와 각 지구별 사무처가 교회와 연회,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 스스로 보다 나은 위치 선정의 계기로 삼도록 할 것입니다.

중앙 감독교회는 중앙 감독의 숫자를 감소하고자 하는 결의안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030년이 되기 전 회원 수가 300만에 달할 것으로 여겨지는 교단의 형편을 고려하여 지도력과 행정 체계의 속성 및 영역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연합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장정의 신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르기를, “신조는 나사렛성결교회가 무엇이며, 또한 나사렛성결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한다.” (장정의 ‘통치 기구’ 서문)

나아가, 장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사렛성결교회의 연합을 가시적 형태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중앙총회인데, 이는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 설정과 법령 제정, 그리고 선거 등을 관장하는 최고의 권력 기구이다.(300) 두 번째의 가시적 형태는 국제 중앙위원회로서, 이는 전체 교회를 대리한다. 세 번째는 중앙감독회가 있는데, 이들은 장정을 해석하며, 그와 관련한 문화적 적용 방안들을 승인하며 목회직을 임명하는 권한 등을 갖는다.”

나사렛 교회의 연합의 세번째 가시적 형태인 중앙 감독회에 관한 중요한 변화는 반드시 행동보다 앞서 깊은 통찰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금번 중앙 총회가 교회론에 관한 이러한

류의 결정을 행함에 있어서 세심한 연구와 함께 충분한 근거 위에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앙 감독회는 나사렛 교단의 미래에 관한 연구를 시도함에 있어서 중앙 감독직에 대한 검토와 그것이 갖는 지구촌 교회 내에서의 영적, 신학적, 그리고 행정적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이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앙 감독회에 의해 임명된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그 위원회가 충분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앙 감독회에 권고안을 가지고 오면, 감독회는 그것을 다음 중앙 총회를 앞둔 적절한 시기에 중앙 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평가의 측면에서 다른 요소들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현재적 활동과, 신조, 선교 기금 마련, 연결체로서의 교회, 선교, 그리고 조직과 같은 것이 우리가 행하는 일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단이라는 넓은 구조 속에서 한데 어우러져 두번째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요소들이 될 것입니다.

희망에 찬 미래 (렘 29:11)

꿈을 실현하기

나사렛 교회의 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웨슬레안 성결교리의 전통 위에서 제자 삼는 교회이며, 국제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초창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꿈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꿈을 현실화하는 일은 단지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앞서지 않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그의 은총에 의지하여 꿈의 실현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교단의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결심은 매 세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각 세대마다 선교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의 흔적을 남겨왔습니다.

다른 세상

또 다른 100 년 동안의 선교의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지구촌을 가로질러 인구 통계상의 심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는 물론 삶의 모든 면에서 이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구촌의 인구 통계가 매 시간 마다 8,700 명, 그리고 일 분에 145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 5 명에 한 명 꼴, 지구촌 전체로는 1 억 3000 만명이 10 세에서 19 세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나이로서, 역사 상 가장 많은 젊은이들의 수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 가운데 4 명 중 1 명은 하루 평균 1 달러 미만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 10 – 19 세의 젊은이 가운데 87%가 개발 도상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 2007 년에서 2025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인구는 3 퍼센트가 증가하는 반면에, 개발 도상국의 인구는 49 퍼센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도와 파키스탄, 콩고 자유 민주 공화국, 방글라데시, 우간다, 미국, 에디오피아, 그리고 중국 등 9 개 국가가 2050 년 까지 세계 인구 증가율의 절반을 담당할 것입니다.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나사렛 교회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출 것

중앙 위원회는 2009 년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단일 선교 체계를 만들어 외면적인 것을 더욱 보강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나사렛 교회들을 배출하고자 하는 중앙 감독회의 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나사렛 교회들은 모두 선교의 동력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미처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단지 현상 유지를 바라는 식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되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외부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르기를,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고 말합니다.

‘찾는다’는 말은 적극 동사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선교 현장은 우리의 발 아래 땅입니다.”

나사렛 교회들은 일관된 신학적 비전을 갖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교단은 웨슬레안 성결, 그리고 웨슬레안 알미니안 전통의 교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교단입니다. 하나님의 선행 은총은 세상 어디에나 활동하고 있으며,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대속할 뿐 아니라, 우리를 또한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자 하시며, 우리 속에 깨어지고 병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사랑의 불길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외면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교회들은 자연히 방법론에 있어서 융통적이기 마련입니다.

나사렛 교회가 어떤 교회 인지를 알게하는 형식에 있어서 한가지만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대도시나, 소도시, 혹은 산간 벽지에서도 나사렛 교인으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큰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작은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채색 유리로 장식된 웅장한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나무 아래 진흙으로 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오히려 그 모든 장소의 ‘중간’에서 드러집니다.

우리는 부유한 도시 민일 수도 있고, 암울한 게토 지역의 사람들 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다반사처럼 일어나는 탓에 온통 불안에 떠는 지역의 사람들 일 수도 있고, 사방에 평안함이 가득한 장소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 민들이건 시골 사람들이건 간에,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건 부요한 사람들이건 간에,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나사렛 교인이라고 불리웁니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구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으며, 그들을 위한 선교의 방법과 계획 역시 한 가지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편지나 전보, 또는 지상 통신 전화를 사용하였던 것처럼, 지금의 사람들은 온 라인 상의 블러그나, 문자 메시지, 혹은 화상 매체를 통하여 통화를 하곤 합니다.

세대 간의 의사소통 체계나 방법의 차이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모두 한가지의 사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 감독회는 최근에 새로운 지구촌 선교국의 개설을 결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여 세계 각 곳의 지도자들을 한 방, 한 테이블에 모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촌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동일한 초점과 열정을 갖고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한 곳에 두는 데에는 필경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그렇다고 두 가지 사명을 좇을 수는 없습니다. 사명은 한 가지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와 금식으로 이 사명을 정결케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활동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께서 명하사 사울과 바나바를 명하여 세우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행 13 장).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선교를 위한 성령의 강권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 한가지가 바로 우리가 기도와 금식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 13의 기록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성령의 강권하는 음성을 듣기도 전에 이미 성경은 이르기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안디옥의 신자들은 금식과 기도를 통한 순종을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가족 여러분, 지구촌의 외진 곳에서만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활동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금식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우리 교단이 선교 2 세기를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그 일을 무릎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중앙 감독회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요약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중앙 총회는 우리 교단의 앞 날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008년 중국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 경기를 보신 분들은 남, 여 이어 달리기 시합을 기억할 것입니다. 계주 경기의 성패는 각 주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잘 뛸 뿐 아니라 바턴 터치와 중요성 역시 큰 몫을 합니다. 아무리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라 할지라도, 바턴을 주고받는 한 순간을 위한 특별한 훈련을 빠트릴수 없습니다.

하계 올림픽에서 종종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능히 우승할 것으로 예상했던 팀이 그만 바턴 터치를 잘 하지 못한 나머지, 메달권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이전 세대가 영적으로나 행정적인 면의 책임을 다음 세대에게 적절히 넘겨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어 달리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에 대한 근사치의 정보가 없이는 조직과 체계의 전달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없습니다.

개교회와 연회, 그리고 일반적인 관심사의 영역에 걸쳐서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을 위한 의미있는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이나 문화적 차이를 막론하고 자격있는 지도자들이 속히 선정되어 넓은 관점에서의 교단의 사역에 익숙해질 때, 구 세대의 책임 전수가 보다 더 수월해지는 법입니다.

언젠가 Leighton Ford 가 *World Vision* 에 이러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세대 간의 변화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도의 역군들의 시대가 다하여 은퇴하거나 사역의 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떠 오르는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에게 바톤을 넘겨 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들에 대해 알아야 하며,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서 전도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그들을 그들과 연계하여 그들을 더욱 신장시키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결코 우리의 꿈을 이룩할 목적으로 그들을 대하거나, 우리의 방법을 고집하고 우리들 자신을 재 생산하고자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꿈을 이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단 한 줄의 충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는 나사렛 교회의 창시자인 Phineas Breese 와 그외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것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Take time to be holy!).

거룩한 삶의 영역에 들어 가는 방법에 대해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 개인적으로 예배와 성경 연구,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라.

- 예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훈련된 삶을 살아라. 스스로 평화와 건강을 해치는 일체의 일들을 피하라. 자신이 받은 부르심의 수준에 합한 삶을 살아라.
- 주는 일이나 받는 일에 있어서 건강한 인간 관계를 계발하되, 만나는 모든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라. 분리와 소외가 아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도록 하라.
- 매사에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와 자비를 구하는 식으로 보다 넓은 세계를 꿈꾸며 살아라.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 마다 너 기도하라*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나사렛 교회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또 다른 면으로의 성장을 지속할 것입니다.

나사렛 교회는 하나님의 성결케 하는 은총의 복음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나사렛 교회는 복음전도와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나사렛 교회는 선교사 파송을 계속할 것입니다.

나사렛 교회는 교회 개척을 계속할 것입니다.

나사렛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지속하는 일은 다만 우리들 각자가 성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열방 가운데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삼는 일에 나사렛 교회의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기름부음이 그의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출자,

나사렛교회 중앙감독회

James H. Diehl

Paul G. Cunningham

Jerry D. Porter

Jesse C. Middendorf

Nina G. Gunter

J. K. Warrick

원고 작성 및 낭독자 Jesse C. Middendorf

bgs@nazarene.org